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2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26.(금)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 25.(목)	담당부서	산업혁신과 전자부품과
담당과장	최연우 과장(044-203-4220) 박영삼 과장(044-203-4270)	담 당 자	차세운 사무관(044-203-4224) 이태욱 사무관(044-203-4275)

산업부 차관, 반도체산업 현장방문

- 1.26(금) 09:30,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문 -
- 최저임금 인상 정착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당부 -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26(금) 에스케이(SK) 하이닉스(대표: 박성욱 부회장) 이천공장을 방문, M14공장의 디램(DRAM) 생산라인을 관람한 후 **최저임금 인상, 대·중소 상생협력** 등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1.26(금) 09:30-10:50 ○장소 :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참석자 : 이인호 산업부 차관,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논의내용: ①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②임금공유제 등 협력업체 지원 현황
③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건의사항

□ 이인호 차관은 반도체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9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에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 특히, 에스케이(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천 M14공장('15.8월 준공)에 대한 **야심찬 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면서,

* '17년 실적 : (매출) 30.1조원 (전년비 75%↑) (영업이익) 13.7조원 (전년비 319%↑)

○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인호 차관은 이것이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일부 영세·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1조 원) 등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 30인 미만 업체의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
** 두루누리사업 확대, 건보료 감면 등을 통해 신규가입 근로자 1인당 22만 원 지원

○ 여기에다가 **중소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산업 현장에 보다 신속·원활하게 안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특히, 이인호 차관은 에스케이(SK) 하이닉스가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15년부터 실시중인 **'임금공유제'를 모범사례**로 들면서, 앞으로도 에스케이(SK) 하이닉스에서 **대·중소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의 10%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마련한 재원(=임금인상분의 20%)으로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복지를 개선하는 제도

□ 이인호 차관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중소기업이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라 강조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 차세운 사무관(☎ 044-203-42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1-26 09:22:30